

# 통쾌한 '19금 코미디' ... 박나래의 농염주의보



### 대중 앞 당당한 성적 농담 수위는 상상하는 것 이상 여성 관객에 해방감 제공 넷플릭스에서만 방송

"세상의 남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랑 잔 남자, 앞으로 잘 남자." 개그맨 박나래(34)의 거침없는 화법에 객석은 환호로 가득찬다. 지난 16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쇼 '박나래의 농염주의보' (이하 '농염주의보') 한 장면이다.

#### ◇ 박나래 '농염주의보', 재미보단 통쾌함에 방점

박나래는 '농염주의보'로 생애 첫 단독 스탠드업 코미디에 도전했다.

그가 삼은 소재는 '성(性)'이다. 박나래는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바탕으로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한바탕 풀어놓는다.

종류는 다양하다. 자신의 첫 성 경험에 관한 에피소드부터 친구들의 기상천외한 경험담, 여성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루머가 담긴 '지라시'까지.

수위는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 생각보다 수위 높은 농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관객들 표정을 보고 박나래가 오히려 관객들을 다독여 줄 정도다. 지상파는 물론이고 케이블에서도 방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농염주의보' 또한 '넷플릭스'에서 가능한 콘텐츠'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농염주의보'가 공개된 후 약 일주일간 시청자들은 소셜미디어로 다양한 감상을 공유했다. 일단 코미디 본인의 기능인 웃음을 채워줬는데 관해선 호불호가 갈렸다.

목적어를 생략하고 성적인 코드로 오

해를 유도한 뒤("잘 하게 생겼잖아") 반박자가 지난 다음 오해를 해소하는 방식("말을 잘 하게 생겼다고")의 유머가 여러 차례 반복돼 초반 심어분이 지나면 다소 뻘뻘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일부 누리꾼은 박나래가 외국인의 어눌한 발언을 희화화하는 데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성 연예인이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한다는 데서 오는 의의는 크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1일 통화에서 "소위 '19금 개그'를 여성이, 그것도 굉장히 당당하게 하는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여성으로 보이는 관객은 박나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폭소다. 이 웃음은 재미보다는 통쾌함에서 오는 측면이 크다. 그 통쾌함이란 물론 여성이 성에 대해 거리낌 없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데서 오는 해방감이다.

쇼 말미, 박나래의 대사("여러분, '여자가 어찌고 남자가 어찌고' 세상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뭐 합니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시원하게 하고 싶은 거 합시다!")에선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한다.

#### ◇ 국내에서도 기지가 켜는 스탠드업 코미디

정치부터 종교, 성(性), 인종 등 세상의 온갖 것을 비교고 풍자하는 스탠드업 코미디는 영미권에선 크게 번창한 장르지만 우리나라에선 잔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군부독재 시절을 거치며 표현의 자유



가 오랫동안 허락되지 않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와 사실적 명예훼손죄, 엄격한 방송 규제는 온갖 금기에 도전하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흥대, 강남 등지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올해 초 집 제프리스와 짐 개피전 등 해외 유명 코미디언이 잇따라 내한공연을 가졌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 외국 유명 스탠드업 코미디가 유통되고 있다. 트레버 노아, 해나 개즈비 등 미국 인기 코미디언 쇼는 한국에서도 일부 마니아층이 형성됐다.

방송인 유병재도 넷플릭스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에 도전했다. 박나래는 스탠드업 코미디쇼를 테마로 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스탠드업'의 진행자로 나설 예정이다.

## '금단의 땅' DMZ의 사계와 생태

### YTN 다큐 '새로운 여정' 26일부터 3부작 방송

YTN은 26일 밤 9시 20분 비무장지대(DMZ)에서의 1년간 기록을 담은 3부작 다큐멘터리 'DMZ, 새로운 여정'을 처음 방송한다.

작품은 66년 동안 인간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생태의 보고가 된 DMZ의 사계를 공개하고, 한국보다 먼저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겪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세계사적 관점에서 DMZ의 가치를 짚어본다.

DMZ 촬영만 4번째인 이문세 기자와 이동규, 박영주 기자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에 걸쳐 DMZ의 사계와 희귀 생태를 포착한 영상 기록물이기도 하다.

26일 방송할 1부 '시간이 멈춘 땅, DMZ'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6월 북미 정상회담 협정, 남북 유엔사기 공동으로 전개한 태풍 링링 피해 복구 모습

지 DMZ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을 되짚어 보고, 생태평화공원이 들어선 '생장리' 마을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되새긴다.

다음 달 2일 방송할 2부 '생명이 숨 쉬는 땅, DMZ'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4K 초고화질 카메라로 담은 DMZ의 사계를 공개한다.

전 세계 통틀어 2천여 개체만 남은 희귀 조류 두루미의 월동지인 DMZ. 생태 특성상 가족 단위인 3, 4마리씩만 무리 지어 사는 두루미가 철원 평야 일대에서 천여 마리가 모여있는 진귀한 풍경을 포착했다. 이 밖에도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호), 노랑부리백로(천연기념물 제361호), 오랜 고립으로 고유의 유전자를 간직한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등도 카메라에 담았다.

같은 달 9일 3부 'DMZ, 미래는 시작되었다'에서는 독일의 생태 그린벨트인 '그뤼네스반트'를 통해 분단 지역이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변신한 사례를 살펴본다.

/연합뉴스

## 심수봉~지오디...브아걸, 리메이크 앨범 발표

### 28일 '리바이브' 출시

4인조 여성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제아, 나르샤, 미로, 가인·사진)가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사는 브라운아이드걸스가 28일 오후 6시 6곡 10곡을 새롭게 담아낸 리메이크 앨범 '리바이브'(RE\_VIVE)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멤버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가요사를 빛낸 윤상, 심수봉, 어명남, 엄정화, 이은하, 배이시스, 지오디(god), 김광진, 임현정, 조원선의 명곡을 선정했다.

다들 타이틀곡인 '원더우먼'과 '내가 날 버린 이유'를 비롯해 '결국 흔해 빠진 사랑 얘기', '애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하늘', '사랑밖엔 난 몰라',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조대', '편지'가 수록됐다.

편곡에는 윤상과 김현철, 이민수, 지고릴라, 작사, 광진언, 영광의얼굴들 등이 참여했고, 윤상은 앨범의 전반적인 사운드 디렉터를 맡았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0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얼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습터(재)	00 동백꽃 필 무렵(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13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푸르기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14	00 KBS 뉴스 10 쥐라기 캡스 쥐라킹 25 공순이의 울동교실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남녀종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 30 뿌까	
15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황금정원(재)	00 네모세모 55 닥터 365
16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2019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V-갤럭시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양코리 MBC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7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인 블럭박스(재) 20 돈 워리 스톨
18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
19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브24 55 제보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0	00 KBS 뉴스9			
21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한국방송대상수상 핑크피쉬	00 시크릿 부티크
22	35 UHD 습터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with 레이크뮤직페스티벌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10 점수! 무비월드 1~2부
23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다이어리 30 황금정원(재)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재)

## EBS1

07:00 코요몽3	12:10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07:15 피피루 안전특공대	13:00 다큐 시선	18:00 생방송 특!톡! 토크(재)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8:00 덩동맹 유치원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5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20:00 4남매 쇼
08:45 또개비 가족	15:10 코코몽3(재)	20:30 자이언트 팽TV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다큐동화 달팽이	15:5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푸드 트립 스페인-어울러야 제 맛!>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올리 앤 문재)	<여행책에 없는 강원도 4부 별 보러 갈래요?>
10:30 한국기행(재)	16:45 덩동맹 유치원(재)	21:50 다큐 시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퍼 피크(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4일 (음 9월 26일 甲午)

<p>36년생 빨리 조치할수록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8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60년생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해졌다. 72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84년생 한 번 잃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느니라. 96년생 실현 가능한 원인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1, 84</p>	<p>30년생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실효적이다. 42년생 손조롭다고 인식할 때 복병을 만나기 쉽다. 54년생 돌발 사태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66년생 어떠한 구조로 설정되느냐가 문제이다. 78년생 전화위복이요, 새옹지마에 비유할 만하다. 90년생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겠다. 행운의 숫자 : 57, 54</p>
<p>37년생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49년생 시간을 쪼개서라도 먼저 행해야 할 일이 있다. 61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느니라. 73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85년생 노후 되었다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97년생 확실히 한계를 갖지 않으면 장애에 난처한 입장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행운의 숫자 : 07, 90</p>	<p>31년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고비를 넘길 수 있다. 43년생 머지않아서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니 가급적 행동하지 말라. 55년생 결과는 대동소이 할 것이니 편하게 인내도 된다. 67년생 얽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하느니라. 79년생 원한다면 취할 가능성이 높다. 91년생 속의하는 과정에서 깊은 결론에 이르리라. 행운의 숫자 : 01, 42</p>
<p>38년생 지나치다면 미달할만 못 하느니라. 50년생 명료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62년생 무난하리라. 74년생 상대를 위하는 자세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리라. 86년생 가벼운 현상에 불과하니 그다지 의식할 필요는 없다. 98년생 현실적으로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9, 72</p>	<p>32년생 작은 일에 발목이 잡혀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44년생 머리로서 파악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써 공감하자. 56년생 최적의 상태이니 계속 진행하라. 68년생 단편 과자에 집중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 80년생 행편과 처지에 맞아야만 하느니라. 92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룰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48, 71</p>
<p>39년생 선수를 가려서 따져봐야 할 시기에 와 있다. 51년생 변변한 일은 과감하게 처치하는 결단을 요한다. 63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까지 수월할 것이다. 75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순탄한 판국을 조성할 수 있다. 87년생 평상시대로만 해 나간다면 무난할 것이다. 99년생 재반사를 원점에서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2, 86</p>	<p>33년생 불발요한 것이 상대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리라. 45년생 길잡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57년생 본전만 찾아도 다행이리라. 69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81년생 특별한 방법이라야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93년생 상대에게 이익을 줘야 성립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3, 78</p>
<p>40년생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52년생 우연한 행운이 상당한 기쁨을 안겨다 주는 형세이다. 64년생 주변의 충고를 수용한다면 해결점을 찾는다. 76년생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88년생 일의 선수를 정한 다음에 중점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 00년생 참된 가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진력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9, 99</p>	<p>34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히 요구된다. 46년생 남은 좋지만 정작 주인공은 실속이 없었다. 58년생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간다. 70년생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맹점을 드러낼 수 있다. 82년생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겠다. 94년생 참으로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6, 74</p>
<p>41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효과는 클 것이니라. 53년생 조금만 더 애쓰면 원하는 성과가 도출 되리라. 65년생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경계할 일이다. 77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89년생 공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01년생 차분 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18, 67</p>	<p>35년생 불행적이 추진하던 일에 차질을 줄 수 있다. 47년생 적절한 시기의 선택과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59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71년생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저 소모적일 뿐이다. 83년생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95년생 이미 던져진 주사위이니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행운의 숫자 : 73, 75</p>